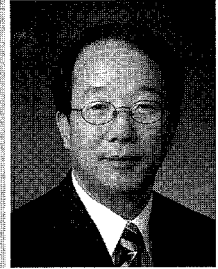


민통련은 아름다운 추억이자 희망이다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이 광 철



1956년생, 전북대학교, 전북 민주자유동맹의회, 전북 민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말하라 하면
단연 민통련 시절이라고 말하리라.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 민통련 사람들을 부르리라.

나는 84년 2월 형집행정지로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출소하여 특별히 할 일도 없어 복학을 하였으나 학교에 가면 나는 경계인이었다. 학생들과 교수, 기관원 사이에서 학생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관원도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소속이 없는 경계인이었다. 자연스럽게 뺑잡이들이 죽칠 수 있는 사회과학 전문서점인 '금강서점'에 들러 시간을 보내면서 2, 3년 전에 풀다만 보따리를 학생운동출신 뺑잡이들과 다시 풀기 시작했다.

분단된 조국, 수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살인군사독재정권하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망하는 세상을 위해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전북의 전망에 대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리의 논의들은 80

년말 광주상무대 영창에서 출소한 뒤, 초점없는 시선으로 폐잔병처럼 풀기 빠진 와이셔츠를 입고,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던 시절의 논의와는 분명 달랐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기운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운들이 모아지기까지는 나름대로 처절한 반성들이 있었다.

첫 번째 반성은 80년 5월에 대한 반성이었다. 동지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며 싸우지 못한 부끄러움과 오월 광주와 함께 싸우지 못한 전북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큰 빛에 대한 반성이다.

두 번째 반성은 기존의 우리의 모습이 전북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접목하지 못한 점과 지역민들을 삶의 주제로 세우지 못한 운동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이러한 반성과 논의는 청년활동가에서 농민현장으로, 노동현장으로 그리고 군산, 익산, 부안, 임실 등 시, 군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 8월18일, 전주 카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200여명의 지역활동가들과 김근태, 이부영 등 내외빈을 모시고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전북민협)를 발족하였다. 지역운동의 기발을 내건 80년대 전국최초의 공개 민주화운동체였다.

당시 전북의 상황은 각 현장에서 조직을 뿌리내리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각 부문간의 연대와 지원협력이 절실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연대란 생각도 못했던 시기였다.

전북민협이 출범하여 청년활동가들이 사무국의 실무를 맡아 각 부문운동의 실무를 지원하고, 부문운동의 고민을 전체의 고민으로 받아 안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각 부문이 함께 공동투쟁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전북민협은 전북지역운동의 구심체로 바로 설 수 있었다.

전북민협의 실무자들은 하루에도 성명서를 몇 장씩 작성해야 했고, 각 시, 군을 돌며 교육을 담당해야 했으며 투쟁이 있는 곳이면 연락업무에서부터 보급투쟁까지 도맡아야 했다. 심지어는 투쟁의 진두지휘를 맡아 그 투쟁의 책임까지 져야 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전북민협의 사무국장은 구류가 다반사였고 수배, 구속으로 임기를 채웠다. 그래도 그때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동지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했다. 농민회에서 동지 한 사람을 얻는데 검정고무신 한 켤레가 달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다.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역조직의 실무자로서 다른 지역의 상황과 투쟁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지역의 조직과 투쟁에 대한 모범적 사례에 대한 정보와 지역간의 연대를 통한 전국적 투쟁의 조직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한 바램과 요구는 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으로 출범으로 해결되었다. 전국 조직을 갈망하며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던 지역활동가들에겐 민통련은 희망이고 힘, 그 자체였다. 민통련 회의가 소집되면 지역활동가들이 사전에 모여 의제를 먼저 논의하고 결의를 모아 회의에 임하였다. 전국회의에선 지역운동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높았고 방향의 흐름도 지역운동체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왜냐하면 전국회의의 결정에 대한 실천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실천에 대한 결정이 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접목하지 못하면 그 실천으로 지역운동과 활동가들은 지역민들의 신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지역의 현실을 고집하곤 하였다. 자연적으로 민통련에서는 지역활동가들의 모임이 지역운동협의회(지우협)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민통련이 87년 6월항쟁까지 전국적 시민항쟁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도 85년 지역운동의 활성화, 86년 민주헌법쟁취운동, 개헌현판식투쟁 등 지역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통련 지우협의 동지들은 70년대 중반 학번으로 연배도 비슷하거나 긴급조치나 80년 계엄포고령으로 구속되어 감옥에서 고생을 함께 하던 동창들도 많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가 같고 하는 일과 고민도 같아서 보자마자 친구가 되고 혈혈동지가 되었다.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고자 모임도 지역순방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회원들 중에는 반절이 수배자들이라 회의장소를 구하는 일도, 만나서 안내하는 일도, 독립운동하는 심정이었다. 수배자들이나 구속되었다 갓 출소한 사람이 있어 그들의 환영회 내지 위로의 자리는 백화점의 물건들 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있고 진지했다.

86년 5·3인천사태 이후에는 현상 수배자가 많아서 익명이 잘 보호되는 서울에서 주로 만났다. 민족자주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양놈들 다니는 클럽에도 자주 갔고 방배동 카페촌도 단골처럼 다녔다. 대부분 밤에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관은 수배자 사진들이 붙어 있고 검문이 심했다. 여관주인들도 얼굴확인을 하면서 신고도 잘했던 시절이다. 지금은 참 좋은 시절이다. 안내실에 사람이 없는 여관이 많다하니 말이다. 여관 검문도 없고, 좋은 세상 만들었더니 이상한 연인들만 혜택을 본다.

우리는 경찰의 검문이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서 만났다. 이태원의 클럽 구석에 모여 이야기하다가 잘 안풀리면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함께 몸을 흔들고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고 새벽 4, 5시가 되면 해장국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 다음 모임에 모이면 잡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우리는 뜨거운 동지였다.

이때에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명식이었다. 이명식은 민통련 본부 조직국장으로서 지운협에서는 제법 권력을 휘둘렀다. 회의일정의 연락과 의제를 정하는 일이 본부 조직국장 겸 지운협 간사로서의 그의 역할이었고, 본부에서 발행되는 기관지 민중의 소리와 계간지격인 잡지 그리고 각 부문운동의 자료 등 온갖 종류의 자료를 분배하는 역할도 맡았다.

자료를 분배하는 일은 권력이었다. 유인물 한 장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아귀다툼을 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자료들을 지역에서는 또다시 부문과 시, 군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지역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식에 목말라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명식은 본부 조직국장보다 지운협 간사가 더 매력있는 위치라 생각할 것이다. 그덕택으로 지역에서 술접대(?)도 제공했으리라...

한 장이라도 더 챙기려고 실갱이를 하고 나면 또 걱정이 앞선다. 이제 삼엄한 검문검색을 뚫고 지역까지 무사히 그 물건들을 배달하느냐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자가용도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땐 우리 주변에 자가용 가진 사람이 없었다. 허리에다 감기도 하고 선물꾸러미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해서 지역으로 무사히 도착하면 그 유인물 한 장 한 장이 시민들의 가슴을 흔들어 깨우던 시대였다.

민통련 20주년!

흐르는 것은 강물과 세월 뿐인가? 벌써 20년이 흘렀다.

제대로 정기총회 한번 치르지 못하고 경찰에 쫓겨 홍제동성당으로 종로성당으로 왔다 갔다 결국 홍제동인지 이름도 모르는 중국집에 모인 사람들이 만세 삼창으로 총회를 치루었던 민통련. 민통련이 처음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치루었던 총회는 해산총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그 시절 그 사람들 보고 싶다.

문익환 목사,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시다. 아이처럼 맑고 고운 분이시다. 그렇게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분단을 넘으실 수 있었으리라. 선생이 계시면 선생님 가방 들고

평생을 따라다니는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선생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다. 그 일이 없어져서 다른 일을 찾았나보다.

신영일, 참으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동지이다.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30년에 하는 사람이 있고 50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영일이는 그 짧은 삶에 그 일을 다해야 했기 때문인지 밤낮으로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온 동지였다. 혼신을 다해 뜨겁게 산 멋을 아는 동지이다.

정순철, 눈 감으면서 나보고 호주제법 꼭 폐지하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살았어도 볼 수 있었을텐데….

오늘은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이 하나 둘 생각난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20주년 기념식에서 볼 수 있겠지… 20년 전에 만났던 지운협외 동지들은 일 년에 한두 번씩은 만난다. 똑같은 이야기를 20년째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그립다.

내 삶에 있어 민통련은 아름다운 추억이며 희망이다.

그때만큼만 살았으면….